

5. 중재재판 - 보험료 지급 VS 소송 시뮬레이션



10 여년 전, British Aerospace 가 리스로 빌린 작은 상업용 제트기와 프로펠러 비행기를 운용하여 얻는 수익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보험자 및 재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.

그런데 9/11 테러와 다른 요소들로 인해 매우 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감소가 초래되었다. 보험료는 해당 청구 건이 발생하기 10 여년 전에 수립된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모델에 근거하여 책정되었다. 보험사들은 그 모델이 목적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며 결국 런던

국제중재재판소의 심판을 구하게 되었다.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원래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.

Vose(*'ModelRisk'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)는 법무법인 Allen and Overy 의 요청으로 소송에서 British Aerospace 측 감정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다. Vose 가 선택된 이유는 20 년 이상의 리스크 분석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10 년 전에는 무엇이 베스트 프랙티스이었던 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, 매우 복잡한 모델을 분해하여 로직과 가정들을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. 그 결과 해당 모델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으며 보험사들은 소송을 하는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.